



기아차 4세대 카니발 렌더링 이미지.

베일 벗은 신형 카니발 차별화된 볼륨감 ‘뽐뽐’



전면부, 무대 퍼포먼스 모티브 완성
사이드 캐릭터 라인 적용, 활력 부여

기아자동차가 국내 대표 미니밴 신형 카니발의 외장 렌더링 이미지를 18일 공개했다.

카니발은 1998년 처음 출시된 다음 전세계에서 누적 200만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 셀링 모델이자 기아차를 대표하는 미니밴이다. 신형 카니발은 2014년 3세대 이후 6년만에 선보이는 4세대 모델로 기존의 미니밴과 차별화된 자신감을 담아 단단하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신형 카니발의 외장 디자인 콘셉트는 ‘웅장한 볼륨감’이다. 기아차는 독창적이고 웅장한 건축물의 조형에서 느껴지는 강렬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조화를 기반으로 신형 카니발을 디자인했다.

기아차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균형 잡힌 무대 퍼포먼스를 모티브로 완성한 라디에이터 그릴, 박자와 리듬을 형상화한 헤드램프로 신형 카니발 전면부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또 헤드램프부터 리어램프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속도감이 느껴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을 적용해 신형 카니발에 활력을 부여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오트오에버, SW 기반 보안 솔루션 개발

별도 저장소 없이 모든 환경 적용

현대오트오에버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화이트 박스 암호화 기술 기반의 보안 솔루션인 ‘HAE-WBC’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오트오에버는 스마트 X(모빌리티·시티·팩토리) 서비스 보안 강화를 목표로 기존 하드웨어 기반 보안 기술과 달리 소프트웨어만으로 암호키를 보호하는 ‘HAE-WBC’를 개발했다. 이는 별도 저장소 없이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모든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HAE-WBC는 저사양 환경에서도 무리없이 탑재될 수 있도록 경량화해 향후 차량 내부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데이터 암호화 속도가 상용 제품 대비 약 25배 이상 빠른 것이 장점이다.

HAE-WBC는 암호키를 암호 알고리즘 속에 섞어 공격자가 쉽게 암호키를 복구할 수 없도록 설계했으며 이중 안전장치로 구현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설령 모듈이 공개되더라도 키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모듈을 난독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태홍 수습기자

“AI가 냉난방 자동 최적화, 10% 에너지 절감”

KT-한국지멘스 ‘로보 오퍼레이터’
설비 운영 시점·설정 값 자동 제어

KT는 한국지멘스와 함께 대전 서구에 있는 대형 쇼핑몰 세이브존에 ‘냉난방 설비 최적 제어 솔루션’을 구축하고 약 4개월 간의 운영 결과 10%의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KT와 지멘스가 구축한 냉난방 설비 제어 솔루션은 한국지멘스의 빌딩 자동화 시스템에 KT의 지능형 제어 알고리즘 ‘로보 오퍼레이터’를 접목한 에너지 절감 기술이다.

로보 오퍼레이터는 빌딩 운영자의 경



KT 연구원이 냉난방 설비 최적 제어 솔루션이 적용된 대전 서구 세이브존 기계실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KT

험에 의존해 냉난방 설비를 끄고 켜 에너지를 절감하던 기존 방식을 최적의 설비 운영 시점과 설정 값을 축적된 데이터로 찾아내 자동으로 제어해 준다.

/김나인 기자

신규영지·클래스... ‘리니지2M’ 대규모 업데이트

엔씨소프트 24일 콘텐츠 추가
특별선물 제공·사전등록 이벤트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 수행게임(MMORPG) ‘리니지2M’이 대규모 업데이트로 1위 수성에 나선다. 엔씨소프트는 자사 모바일 MMORPG ‘리니지2M’에 대규모 업데이트 ‘크로니클 III 풍요의 시대’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할 방침이다.

모바일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 앱애니가 시장조사기관 IDC와 함께 발표한 ‘게임 스포트라이트 2020 리뷰’에 따르면 리니지2M은 올 1·4분기 한국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게임으로 나타났다.

엔씨소프트는 오는 24일 에피소드1 업데이트에서 신규 영지 ‘아덴’과 ‘칭’을 무기로 사용하는 새로운 클래스 등을 먼저 선보인다. 신 서버 ‘바이움’도 열린다. 많은 이용자들이 기다리고 있



리니지2M, ‘크로니클 III 풍요의 시대’ 업데이트 예고 이미지.

/엔씨소프트

는 공성전 역시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의 흥행 기세를 업데이트를 통해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업데이트에 앞서 사전 등록 이벤트도 연다. 엔씨소프트는 참여자들에게 ‘계승자의 장비 상자’, ‘크로니클 계승자의 반지 IV’, ‘계승자의 코인’, ‘풍요의 희귀 집현석’을 제공한다. ‘계승자의 장비 상자’에 들어있는 무기와 방어구, ‘크로니클 계승자의 반지 IV’는 캐릭터에 장착하거나 컬렉션에 넣어 능

력치를 높일 수 있다. ‘계승자의 코인’은 매일 유용한 아이템을 지급하는 ‘웰컴 풍요의 시대’ 출석판을 열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특별 선물로 ‘TJ’s 쿠폰’도 마련했다. 이용자는 ‘TJ’s 쿠폰’을 사용해, 과거에 강화 실패로 소멸한 희귀 등급 이상 장비 중 하나를 복구할 수 있다. ‘TJ’s 쿠폰’은 이달 24일부터 지급된다.

업데이트와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보는 리니지2M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

볼보車, ‘서비스 바이 볼보’ 론칭... “구매서 판매까지 최고 만족”

AS망 구축·고객비용 부담 최소화
2023년까지 정비시설 312개 확대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서비스 통합 브랜드 ‘서비스 바이 볼보(Service by Volvo)’를 론칭하고 고객의 차량 구매부터 판매까지 최고의 만족을 전달하기 위한 서비스 강화에 속도를 높인다.

이윤모 볼보코리아 대표는 18일 분당 서현 전시장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빠르고 편리한 AS망 구축 ▲고객 신뢰성 강화 ▲AS에 따른 고객 비용부담 최소화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3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해 서비스센터를 현재의 두배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내 시장에서 무리하게 판매량을 늘리기 보다 안정적으로 판매와 서비스 맞춰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볼보코리아는 2023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해 서비스센터 52개(현재 27개), 차량 정비시설(서비스 워크베이·현재 160개)은 31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차량 정비를 위



이윤모 대표가 ‘서비스 바이 볼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 소요되는 대기 시간을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상반기에 분당 판교, 의정부, 제주 등에 서비스센터를 신설하고 하반기에는 해운대, 천안, 수원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볼보코리아는 이같은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판매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지난 2017년 국내 시장에서 총 6504대 판매 전년 대비 26%의 성장을 이끌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올해 판매 목표도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이 대표는 “단순히 차량 판매에 급급하기 보다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퀄리티 세일즈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볼보코리아가 서비스 관련 통합 브랜드 ‘서비스 바이 볼보’를 도입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볼보코리아는 5년 또는 10만km 보증에 더해 이후엔 이상 교체된 순정 부품을 횡수와 상관없이 보증하는 ‘평생 부품 보증’을 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고전압 배터리 보증기간을 8년 또는 16만km로 연장했다. /양성운 기자

SK C&C, AI로 골든타임 내 뇌출혈 영상판독... GMP 인증

‘뇌출혈 영상 판독 AI모델’
전문의 수준 판독 정보 제공

SK(株) C&C는 ‘뇌출혈 영상 판독 AI(인공지능)모델’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적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고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

로 일관성 있게 생산할 수 있는지를 보증하기 위한 식약처 품질 보증 체계다.

‘뇌출혈 영상 판독 AI모델’은 영상 의학과 전문의 수준의 판독 정보를 수 초 내에 제공한다. 뇌출혈은 골든타임 안에 치료해야 하는 응급질환인 만큼 빠르고 정확한 영상 판독이 중요한 분야다. 응급 뇌출혈 환자의 조기 진단·치료를 도우미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株) C&C는 1차 아주대학교의료

원에 이어 2차로 서울대학교병원의 CT 영상을 활용해 ‘뇌출혈 영상 판독 AI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 학습에는 SK(株) C&C 비전 AI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기술과 총 8만여 장의 뇌 CT 영상 및 판독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기술은 비전 AI 기술 중 해당 객체가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는지를 픽셀 단위로 인식해 객체의 위치를 구분해 내는 것이다.

/박태홍 수습기자 pth7285@